

옛 그림서 배우는 부처님 가르침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불자들은 왜 경전을 강독하고 사경을 할까? 불교 경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힐링멘토' 등이 나타나는 현상에는 왜 사람들이 항상 넘칠까? 오랜 세월 인류의 갈등을 달래준 경전은 '뿌리 깊은 나무' 이자 '생이 깊은 물'이다. 저자는 초기 경전서 대승경전까지, 그리고 중국 경전까지 정독하며 삶의 지혜를 찾고 마음을 닦는다. 여기에 우리의 옛 그림이 동행해 세월의 맛을 더해준다.



옛 그림, 불법에 빠지다
조정욱 지음
아트북스 펴냄
2만 2천원

경전공부는 마음공부다

저자는 경전을 통해 옛 그림을 만나고, 옛 그림을 통해 경전 이해에 깊이를 더한다. 그런데 이 일찍이 만남이 더없이 자연스럽다. 그것은 저자가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전과 옛 그림을 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먼저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드러내 옛 그림에 빗대어 현재를 똑바로 바라보고, 불교 경전에 비취 그 문제를 해결한다. 곧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세 이야기의 감쪽같이 한데 묶인다.

신빙성기적인 이야기로 자신을 드러낸 저자의 개인사는 분명 이 책의 주입재이다. 하지만 불교 경전과 옛 그림을 통해 흐트러진 자신을 바로 세우는 저자의 모습에 자꾸 마음이 간다. 온전히 내 길이 되도록, 이 길만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경전공부는 어디까지나 마음공부다.

옛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님 가르침

이 책은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에 맞춰 기획된 '옛 그림으로 배우는 불교이야기' 시리즈 중 두 번째인 '법(法)'이다. 여기서 법이란 곧 '부처의 가르침'을 말한다. 부처님은 서른다섯 살에 깨달음을 얻고 여든 살에 열반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중생 구제를 위해 설법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삶의 아픔과 고통을 부처님께 물었고, 부처님은 그들에게 해탈과 열반의 해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내용으로 전해진다.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 고스란히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불교 경전'은 '성경'에 비해 그 내용이나 구절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기껏해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나 '올 마니 반대홍' 등의 독송이 일반인에게 익숙한 정도다. 그마저도 단번에 그 뜻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언뜻 독송을 들어봤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그저 듣고 넘길 뿐이다. 경전의 이야기 안에 진리가 있고, 그것이 현재 내 삶과 관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경전 한 구절로 경전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알기 위해 바닷물 전체를 들이마실 필요는 없다. 한 스푼의 바닷물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책은 한 스푼의 바닷물이다." 그렇다. 이 책으로 부처님이 설법한 모든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로는 도저히 전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가 걸집된 경전의 숨은 참뜻을 전하기 위해, 저자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 병풍화 등 옛 그림과 자신의 이야기를 곁들여 경전의 이해를 돕는다. 경전을 알면 곧 부처님 가르침도 알게 된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저자는 자신의 삶과 경전 이야기를 빗대보기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옛 그림을 연결해 그 뜻을 전하기도 한다. 때로는 옛 그림에 자신을 투영해 삶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바른 법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인 법보의

불법승 삼보시리즈 중 두번째 기획

팔만대장경과 옛 그림의 절묘한 만남

옛 그림 감상법 풍부하게 확장

육바라밀에 맞춰 6개로 분류 구성

참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저자 개인사를 통해 듣는 경전과 옛 그림 이야기는 곧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된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설법이 모두 방편이다. 상대방의 근기(根機)에 맞게 대기설법(對機說法)을 했기 때문이다. 방편은 본질이 아니다. 사물을 비취주는 거울이다. 본질은 아니되 본질을 찾게 해준다. 우리는 다만 거울에 비친 사물에 머물지 않고 거울을 찾지만 하면 된다. 책을 읽는 내내 거울을 잊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

옛 그림으로 시작하는 마음 수련

삶의 이야기를 옛 그림이란 소재로 녹여 인생의 지혜와 가르침을 전한 저자는 오랫동안 동양의 정신과 사상을 알리는 강의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불법승 삼보에 빠져 꾸준히 불교 공부에 정진했다. 그런 저자가 짧은 팔만대장경의 대표적 구절과 옛 그림의 만남은 생경한 조화임과 동시에 '옛 그림 감상법'을 풍부하게 확장한다.

예를들면 <잡아함경> 구절과 김홍도의 <노승연승> 연결 부분에서는 "옷의 앞부분에 진한 먹칠함으로써 회색 장삼 위에 적갈색 가사를 입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슴까지 열린 두 손에 힘이 들어가 있음을 암시해준다."며 붓 끝에 담긴 상황을 세심하게 읽어 준다.

또한 그림에 삽입된 "입으로는 갠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끝없이 염불하네(口誦恒阿沙復沙)"라는 글귀는 자연스럽게 불자 김홍도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는 고난에 찬 삶을 염불로 승화시켰다. '갠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끝없이 염불'하면서 자신에게 드리워진 어둠과 칙칙함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처지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신심이 우러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신심을 내기 어렵다. 모든 것이 다 잘되는 줄 알고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작년에 고무나무가 사들지 않았으면 나 또한 분간이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략) 나무를 돌보듯 자주 자신을 살펴야 한다. '백전만갑난조우' 한 불법을 만났으면 불법의 나무가 잘 자라도록 가꾸어야 한다."

다시 김홍도에 대한 이야기는 저절로 저자의 일상과 맥이 닿는다. 그저 단순한 사실만으로 불법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닌 저자의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저자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옛 그림과 부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과거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재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게 한다.

<중아함경>과 정선의 <섬농>, <반야심경>과 장승업의 <태평항해도>, <법화경>과 이인문의 <연경수업>, <화엄경>과 이명기의 <송하독서도>, <보현행원품>과 장한중의 <책거리 그림>, <승만경>과 신윤복의 <문중심사>, <사십이장경>과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능가경>과 이인상의 <검선도> 등의 이야기도 역시 주제에 따라 저자의 개인사와 옛 그림, 부처의 가르침이 서로 넘나들며 연결돼 있다. 이는 부처가 답한 가르침이 그저 경전에 머물지 않고 온전히 내 길이 되도록 해야 함을, 그것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임을, 나아가 함께 읽고 나누는 기쁨에 대해 설파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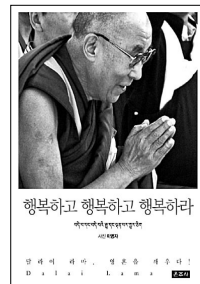
삶 속에 함께 있는 '불법승' 시리즈

'옛 그림으로 배우는 불교이야기' 시리즈는 옛 그림과 불교의 동행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찾는 야심찬 기획물이다. 첫 번째 책인 <옛 그림, 불교에 빠지다-불(佛)> 편에서는 부처의 위대한 생애와 발자취를 따라가되, "부처 생애의 요약본"으로 통하는 <팔상도(八相圖)>의 형식을 빌려 옛 그림과 지은이의 개인사를 버무린다. 그것은 단순한 부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두 번째 책인 이번 '법(法)' 편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탐독하되, 전체 구성을 육바라밀에 맞춰 여섯 개의 장으로 분류했다. 육바라밀은 보살이 생사 고탈을 뛰어넘어 열반에 이를 수 있게 한 여섯 가지 기초적 수행 덕목으로, 수행자라면 누구든 지켜야 하는 계율이자 의무다. 이를 통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찾아본다. 앞으로 나올 세 번째 책 '승(僧)' 편에서는 석가모니 부처의 10대 제자와 역대 조사들의 발자취를 통해 삶의 지혜를 만날 계획이다.

행복하려면... 타인 존중, 탐욕 버려라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사진 이영자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20여년 동안 인도 다람살라서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한 사진작가가 그동안 찍은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인들의 모습을 모아 엮은 책이다. 달라이 라마의 활동과 일상의 모습, 티베트인들의 삶과 수행의 모습, 다람살라의 풍경 등을 카메라에 담은 작가가 그중 일부를 뽑고, 여기에 달라이 라마의 어록을 함께 수록하여 엮었다.

달라이 라마는 관용, 용서, 화해, 자비, 공존, 감사, 소박, 평화의 아이콘이다. 그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의 질곡과 현대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햇살이다. 그는 티베트의 불교 지도자지만 그의 가르침은 종교와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다. 그것은 그의 가르침과 행동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세계인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책은 130여 컷의 사진과 달라이 라마의 어록으로 꾸며졌다.

달라이 라마의 트레이드마크인 특유의 미소는 온 세상의 불안과 근심을 씻어주고 모든 중생의 아픔을 달래주는 포근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슬며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에서는 인자한 할아버지를 연상하게 되기도 한다. 때로, 피곤에 지친 모습은 연민을 느끼게 하고, 하품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슬며시 미소짓게 한다. 법문 하는 모습에서는 경건함을 느끼게 하는 반면, 일상스럽고 친근난만한 모습에서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처럼 달라이 라마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에서

삶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사진과 함께 엮은 어록은, 달라이 라마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들을 간추린 일종의 잠언들로, 가급적 사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말씀들을 함께 엮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은 쉽고 직접적이다. 그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누구라도 알기 쉽게 불법의 진리를 전하고, 삶의 지혜를 일깨운다.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그의 가르침은 종교와 지역,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준다.

모든 존재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생각하게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탐욕을 버리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일깨우는 그의 가르침은, 세속적 질서와 사고에 묶든 우리들의 영혼에 청량한 자극을 준다. 또한 평범한

달라이라마관련 130여 컷 사진과 어록 수록

지혜, 감사, 관용, 용서, 평화 등 다양한 주제

듯하지만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성찰하게 한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고, 그 행복을 위해 한껏 달려가고 있지만, 실상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과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반증한다. 결국 물질, 경쟁, 채움, 지배, 소유 중심의 관계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반면 달라이 라마는 자비, 지혜, 감사, 관용, 용서, 평화, 믿음 등을 통해 행복을 찾으라고 말한다. 종교적 도그마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울리는 그의 삶과 가르침에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치매 앓는 부모 소재의 수필 10여 편 '감동'

나는 늙지 않는다

김삼진 지음 | 북인 펴냄 | 1만 2천원



김삼진 작가는 '글의 재미'가 무엇이며 어떤 지점에서 독자가 감동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는 자신의 수필 속에서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면서까지 쾌활한 웃음을 주는 참신한 실험정신으로 무장했다. 그의 이런 글은 아마도 법상치 않은 이력서 우려 나온 듯하다. 그는 선공판에서 중국문학을 공부했고, IMF 즈음에 유행처럼 번진 감원을 하기 싫었던 고위직서 스스로 물러나 퇴사했다. 이후 개인사업을 했다가 5년 만에 망하고 산 속 오두막서 5년간 칩거 했다. 그 후 노랑진 한 고시원서 또 5년 동안 총무 일을 하다가,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 하남시서 치매를 앓는 99세 부친과 94세 모친을 모시고 있다. 얼핏 들어도 힘들었겠구나 생각되는 굴곡진 삶이었다. 이 무렵 그는 고령화시대를 맞은 시대 상황과 치매를 앓는 구순의 부모님과의 생활서 얻은 소재로 10여 편의 수필을 발표했다. 글을 통해 독자를 감동의 바다로 몰고 가며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산책길서 만난 정겨운 부자(父子)의 모습을 보고 불현듯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떠올라 남다른 본가로 달려가 똑같은 일을 하는

<아버지의 산책>, 낯선 동네의 20층 큰아들 아파트에 갇힌 듯 살던 부모님이 성당 미사 참석을 핑계로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하남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탈출>, 70평생 함께 산 아내에게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당시의 아내를 연호한 어머니로 착각하고 '장가 보내달라'며 애원하는 <장가타령> 등이 그러한 작품이다. 표제작으로 내세운 <나는 늙지 않는다>는 작가가 지금, 이 시점에 하고 싶은 말이 모두 담겨 있다.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있을까? 책 제목만 봐서는 저자의 바람일

저자, 자신이 늙으면 안되는 몸부림 내재

연료한 부모님 봉양이 가장 큰 이유

까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을 읽다보면 자신은 늙으면 안 된다는 강한 몸부림이 내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망치는 젊음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치매를 앓지만 아직도 정정한 부모님을 계속 모셔야 하기에 그는 아직 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월의 무게를 누가 이길까 마는 김삼진 작가는 정말 늙지 않길 발원한다. 건강해야 그의 바람대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지 않겠는가. 부모님은 살아계시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치고 축복이기에 말이다. 김주일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 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 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편)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나만의 황산세계 氣giban
나만의 황산세계 氣giban
나만의 황산세계 氣giban
나만의 황산세계 氣giban

www.hyunbulshop.com